

북한을 위한 기도

2025년 11월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과시했던 북한은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도 북한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열병식에서 최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대립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높아지는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여 핵 보유와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타게팅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의 무대가 되도록, 그리하여 북한의 논리가 힘을 잃고 오히려 평화와 통일로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인접국을 통해 사역이 이루어지는 해외 북한 선교 사역의 특성상 북중러 3국의 협력 강화가 선교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사역 현장의 불안정성 증가 우려도 있지만, 북한과 인접국 사이의 교류 확대로 선교의 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대결구도가 심화되지 않고 그로 인해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과 주변국 간의 교류 확대가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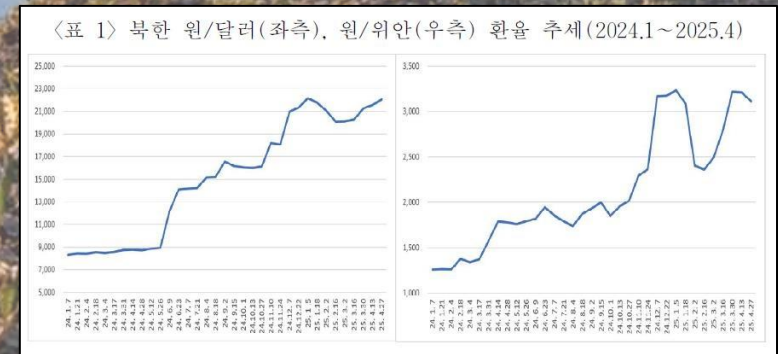


사드 사태 당시 선교사 추방 관련 보도

3.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1년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방의 매서운 추위가 벌써부터 주민들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차별적인 자원 배분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북한	11	인도
2	소말리아	12	사우디아라비아
3	예멘	13	미얀마
4	리비아	14	말리
5	수단	15	중국
6	에리트레아	16	몰디브
7	나이지리아	17	이라크
8	파키스탄	18	시리아
9	이란	19	알제리
10	아프가니스탄	20	부르키나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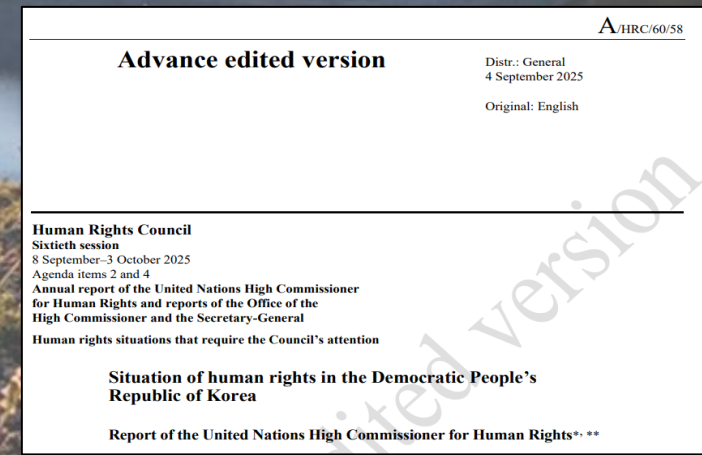
<자료:한국오픈도어선교회>



5.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 위해 기도합니다.

9월 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업데이트된 북한인권 포괄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부분이 많다고 종합 평가하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이나 종교의 자유 제한, 성분에 따른 차별 및 납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이 여전한 가운데, 주민 생활을 억압하는 각종 사상 문화 통제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사형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생명권과 정보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가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억압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민위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9월 4일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6.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24년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습니다. 25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으로의 노동자 파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중국 기업 (사진=NK NEWS)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악화하는 제삼국 북한선교현장의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등록 가정교회와 관련한 규모 있는 처벌 사건들이 보고되는 등 중국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고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